

공공도서관 청소년 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 부산·울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Tasks for Young Adult in Public Libraries-with a special reference to Busan·Ulsan·Gyeongnam

이진화 (Jin-Hwa Lee)**

강은영 (Eun-Yeong Kang)***

초 록

이 연구는 부산·울산·경남지역 내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청소년서비스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2021년 기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과 부산광역시 도서관포털에 등록된 부산·울산·경남지역 공공도서관 93개관을 대상으로 청소년서비스 현황과 청소년서비스에 대한 사서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공공도서관에 청소년 공간이 있는 곳이 24%이며, 공간이 있는 경우 공간 내부에 청소년 서가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은 76%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대상의 연령대는 만13~18세로 설정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의 저조한 이용과 소극적인 참여, 전용 공간의 부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력 부족, 예산 부족 등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서비스 제공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사서들이 청소년 전용 공간과 청소년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도서관 청소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공간조성과 서비스 기획/운영 단계에서 청소년의 참여 확대, 청소년 전용 공간 조성, 청소년 봉사활동 내용의 다양화, 담당사서의 전문성 확보와 지역인적자원 활용, 서비스에 대한 홍보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young adult services centering on public libraries in Busan, Ulsan and Gyeongnam, identify problems, and then suggest tasks for service revitalization. The status of young adult services and librarians' perceptions in the 93 public libraries in Busan, Ulsan, and Gyeongnam that were registered in the 2021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and the Busan Metropolitan City Library Portal was investigated. As a result of the survey, 24% of public libraries have a space for young adult, and if there is dedicated space, it was found that the most number of bookshelves for young adult were installed inside the space. Libraries that provide young adult services accounted for 76% of the total, and the age range of the service targets was set between 13 and 18 years of age. The analysis revealed that it was difficult to provide services due to a combination of problems such as poor use and passive participation by young adult, lack of dedicated space, lack of manpower for program operation, and lack of budget. Nevertheless, most librarians agreed on the need to provide young adult-only spaces and young adult services. The tasks to revitalize young adult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was suggested: expand young adult participation in the space creation and service planning/operation stage, create a space dedicated to young adult, diversify the contents of youth volunteer activities, secure the professionalism of the librarian in charge, human resource utilization, and expand public relations for services.

키워드: 청소년 서비스, 청소년 공간, 티즈 플레이스, 티즈 프로그램, 공공도서관

Services for Young Adult, Spaces for Young Adult, Teens Spaces, Teens Program, Public Libraries

* 본 연구는 2021년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진주제일중학교 사서교사(jinary80@naver.com) (제1저자)

*** 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eykang@silla.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2년 2월 11일 논문심사일자 : 2022년 2월 15일 게재확정일자 : 2022년 2월 28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1): 95-122, 2022.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2.33.1.095>

© Copyright © 2022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 모든 이용자들이 자료와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종, 신념, 성별, 연령, 그 외의 어떠한 다른 이유에서도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모든 공공도서관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대에 비해 아직 상대적으로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세대로 청소년층을 꼽을 수 있다.

『2020년 청소년 책의 해 조사연구 포럼』 중 ‘책 읽는 청소년 독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습관적 독자(독서를 싫어하지 않으며, 최근 3개월 내 1권 이상 자발적 독서 경험이 있고, 주 1회 이상 독서 빈도를 가진 독자)의 공공도서관 방문 빈도는 ‘전혀 안 감’ 19.4%와 ‘몇 달에 한 번’ 34.4%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순영, 김해인, 박신애, 2020). 이처럼 책을 즐겨 읽는 습관적 독자인 청소년도 공공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면, 책이나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도서관 방문 빈도는 더 낮을 것임이 분명하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공공도서관 이용빈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처한 교육 환경의 특수함 등의 이유를 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방과 후 학원에서의 내신 준비와 외국어나 특기 계발을 위한 활동 등으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점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또래집단에 집중하는 또래문화 형성 또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더불어 수백 가지 각기 다른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집약한 스마트폰과 다양한 콘텐츠를 손쉽게 영상으로 접할 수 있는 유튜브의 등장으로 청소년들이 정보를 취득하는 방식이 변화된 것 또한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보획득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의심 없이 정보를 습득하고 습득한 정보의 수준에 만족하여 이를 활용한다. 이러한 정보 입수 방식은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반해 깊이 있는 사고나 창의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정보의 질 역시 검증되지 않아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인 청소년들은 책을 아날로그적이라 지루한 것으로 여기고, 책이 있는 도서관은 청소년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공공도서관 이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시험공부를 위해 학습 공간을 이용하거나, 진학에 필요한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도서관을 찾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의 학벌 중시 풍토와 입시 중심인 교육 제도의 영향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좋은 대학이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여기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도서관을 방문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청소년 서비스를 유지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은 공공도서관이 청소년들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도서관에 따라 상이하지만, 특기적성 활동, 진로 계발에 도움이 되는 정보활용, 봉사 활동 등이 도서관 내에서 가능하며, 창의력과 개성이 넘치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메이커스페이스, 개인 스튜디오나 작업실 등을 갖춘 공공도서관이 증가

하면서 이용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또래와의 시간을 보내고 어른들의 간섭이 없는 공간 속에 머물고 싶은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청소년만의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에 더해 청소년들이 도서관을 친숙하고 편안하게 느끼고 도서관을 즐겨 찾는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성인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도 공공도서관을 계속해서 이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들이 미래에 부모가 되어 그들의 자녀와 자손들에게도 공공도서관을 자주 방문하는 습관을 물려줄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미래 공공도서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공공도서관은 청소년을 도서관으로 불러들여야 한다. 청소년을 도서관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기호와 취향을 고려한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공공도서관을 즐겨 찾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미 많은 해외 공공도서관에서 청소년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특성과 요구에 적절한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문제를 공공의 차원에서 풀어나가고 하는 시도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몇몇 도서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해외에 비해 공공도서관 청소년 서비스 수준이 미미함을 여러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청소년 서비스를 어떠한 내용과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 서비스 담당 사서는 청소년 서비스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의 청소년 서비스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국내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서비스 우수 사례를 조사하고, 부산·울산·경남 지역 공공도서관 청소년 서비스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 조사를 병행하여 청소년 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어 이를 취합하여 공공도서관 청소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2. 공공도서관의 청소년서비스

2.1 선행연구

최근 이루어진 청소년 서비스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대략 ‘청소년 공간에 관한 연구’와 ‘청소년 서비스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로 대별된다.

2.1.1 청소년 공간에 관한 연구

김경희(2013)는 김천시 소재 중·고교 중 6개교를 선정하여 2학년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공공도서관 이용실태, 여가·문화 활동실태, 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인식, 문화공간으로 공공도서관 이용 및 환경에 대한 인식을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지선, 장윤금(2017)은 공공도서관 공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이용 및 요구사항을 알아보고 청소년자료실 공간구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청소년자료실이 별도로 설치된 공공도서관 2곳을 선정하여 중·고등학생 1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김지영 외(2019)는 국내 공공도서관 청소년자료실 공간에 대한 평가요소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자료실 공간 현황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청소년서비스협회에서 제정한 청소년자료실 가이드라인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평가요소를 설정하였다. 이후 서울시에 청소년자료실을 보유한 공공도서관 5곳을 선정,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요소 체크리스트에 따라 공간을 분석하였다. 장아리(2018)는 공공도서관 학습공간의 실태와 공간특성 현황을 파악하고 청소년 이용자의 이용특성 및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품성, 기능성, 환경성, 운영 및 관리, 부지 및 옥외 공간 계획 등 5개 항목 평가를 통해 선정된 25개 건축 우수 공공도서관 중,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하고 열람석 수가 소규모인 사례를 제외한 10개관의 이용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학습공간에 대한 만족도와 향후 선호도를 파악하였다.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공공도서관 이용실태, 공공도서관 공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과 이용특성 그리고 청소년 공간의 현황과 평가 요소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청소년 공간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한 연구가 있었으나 조사 대상이 서울에 국한되어 있어 다른 지역의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신설 도서관이 청소년 전용 공간을 조성하는 추세에 맞추어 국내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전용 공간의 사례를 조사하고, 부산·울산·경남지역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전용 공간의 현황을 조사하고자 한다.

2.1.2 청소년 서비스에 관한 연구

이지연 외(2018)는 국내 공공도서관 어린이 청소년 서비스 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2016년

기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전국 108곳의 공공도서관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담당사서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해 사서의 서비스 인식 및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경란(2011)은 청소년 프로그램의 현황을 분석하고,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흥미를 고려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였다. 프로그램 적용 후 참가 청소년의 만족도를 평가하여 '책 읽는 즐거움'과 '자발적 책 읽기'를 증대할 프로그램 개발 기본 모형을 제시하였다. 최보영(2013)은 공공도서관 청소년 독서 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하고자, 국외 사례로 미국공공도서관협회의 「공공도서관 자료 서비스 통계 보고서 2012: 청소년 서비스 조사 특별판」의 상위 20개 도서관 중 홈페이지의 정보 제공 및 이메일 설문에 응답해 준 6개 공공도서관 청소년 독서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이경란, 한복희(2009)는 공공도서관 청소년프로그램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전 지역 공공도서관 2개관과 사서교사가 있는 대전지역 및 서울지역 학교도서관 각 1개관씩 선정하여 도서관 이용 청소년(중·고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600개의 도서관 홈페이지를 조사하여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현황, 학교도서관과의 협력의 필요성, 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등의 내용을 담당사서 44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김종성, 엄미진(2010)은 공공도서관 청소년 프로그램의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1개의 특별시와 6개의 광역시의 공공도서관 중 2009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청소년 프로그램이 실시된 86개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 프로그램을 조사한 후 담당 사서들을 대상으로

전화 면담을 통해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청소년 서비스 관련 연구에서 서비스 프로그램의 현황을 조사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있었으나 대부분 연구시점이 오래 되어 최근 경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이루어진 연구의 경우 '독서' 중심의 청소년 서비스 프로그램을 연구하는데 초점을 두어,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의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서'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 중심의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사례를 조사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어 전문화된 청소년 공간 부문과 연계하여 국내 공공도서관 청소년 서비스의 우수 사례와 부산·울산·경남지역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서비스 현황을 취합하여 청소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2.2 청소년 서비스 사례

2.2.1 서초구립양재도서관 '틴즈 플레이스'

서초구립양재도서관 청소년 전용 공간인 '틴즈 플레이스'는 도서관 2층 내에 위치해있으며, 주말과 방학기간에는 12세~19세 청소년을 이용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다(서초구립양재도서관, 2020).¹⁾

첫째, '틴즈 플레이스'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서비스로 '생각나눔'이라는 청소년 고민상담 게시판 서비스를 들 수 있다. '틴즈 플레이스' 벽면에 상담 게시판을 조성하여 도서관과 청소년 간의 교류가 아닌 청소년들 간의 다양한 생

각과 의견을 서로 주고받기 위한 소통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상담게시판은 상담코너, 건의코너, 청소년모임코너, 책 추천코너 등 4개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비밀상담상자도 비치하고 있다.

둘째, 매달 다른 주제를 정해 의견 수렴 및 투표로 도서를 선정하여 독서 토론 활동을 하는 '양재청소년독서회'와 영자신문을 읽고 해석 및 내용토론, 연설문 따라 읽기, 원서 읽기 등 영어로 된 독서 활동을 하는 '틴즈영어독서회'를 운영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들의 독서 흥미를 유도하고 독서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분기별 큐레이션을 실시한다. 지난 2020년 3분기에는 '청소년들의 꿈', 4분기에는 '우리 땅' 등 3제 주제를 선정하여 큐레이션을 실시하였고,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홍보함과 동시에 참가자들에게는 복본 도서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틴즈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테마로 청소년들이 틴즈 플레이스 내에서 독서활동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및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탁구시설과 보드게임 6종(설문조사를 통해 선정) 그리고 유튜브와 인터넷 검색 등 가능하도록 TV도 제공한다.

'틴즈 플레이스'에는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TV, 빔프로젝터, 스크린 음향시설, 탁구대 등의 시설을 구비하여 청소년들이 내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더불어 청소년들이 다방면의 지식을 향유하고 독서

1) <https://yangjae.seocholib.or.kr/>

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청소년 단행본 코너와 진로탐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로진학특성화 자료 코너 '유스캐리어존(Youth carrier zone)', 학업스트레스를 풀고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한 만화특성자료 코너 '코믹스 존(Comics zone)' 등을 구비하여 바람직한 청소년 커뮤니티 형성과 활동을 지원하고 개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벽면에는 청소년의 관심사를 반영한 북 큐레이션 서가를 마련하였고, 청소년이 도서관과 전용 공간 이용 중에 떠오르는 아이디어, 책 추천, 건의 사항이나 고민 등을 쓴 쪽지를 붙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담당사서가 일일이 응답해주는 정성과 관심을 보이고 있다.

향후 온라인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모집하여 청소년이 선정한 청소년을 위한 추천도서목록, 내가 꾸미는 청소년 공간, 틴즈 플레이스 홍보 요원 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이 읽어야 할 도서 한 권을 선정하여 정해진 기간 읽고 퀴즈쇼를 진행하는 '틴북 퀴즈쇼'와 '집에서 잠자고 있는 책들을 깨우자'는 주제로 청소년들이 읽은 책들을 자유롭게 교환하거나 적정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청소년 책 플라마켓을 운영할 예정이다. 틴즈 동아리(청소년들이 공간과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아리)를 운영하여, 악기연주, 춤, 연기연극, 독서토론, 보드 게임 외의 다양한 동아리를 운영할 예정이다(틴즈 플레이스 담당자, 2020).

2.2.2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우주로1216'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에서는 3층 전체를 청소년 전용 공간 '우주로1216'²⁾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주로1216'의 가장 큰 특징은 공간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트윈세대를 직접 만나 디자인 워크숍을 실시하고, 실내건축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공간 개념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이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청소년들과 함께 워크숍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대거 수용해서 기존 설계를 수정하는 등의 노력을 거쳤다. 청소년들의 관심과 취향을 반영하여 청소년들이 이해하고 쉽고 흥미를 끌 수 있도록 공간 전체의 명칭뿐만 아니라 공간 내 시설 명칭을 청소년들이 직접 지었다. '우주로1216'은 톡톡존(소통), 쿵쿵존(발산), 슝슝존(창작), 곰곰존(사색), 남남존(휴게공간), 다용도실과 강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세~16세에 해당하는 트윈세대만 이용가능하다(전주시립도서관 꽃심, 2021).³⁾ '우주로1216'이라는 공간은 집이나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경험을 기획하고 실행해볼 수 있는, 경험이 일상이 되는 제3의 장소라는 의미를 갖는다.

'우주로1216'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는 운영 과정에 초등학생 5명과 중학생 15명으로 구성된 '우주로1216 트윈운영단'이 직접 참여한다. '우주로1216 트윈운영단'은 3개의 팀(컬렉션팀, 기획팀, 홍보운영팀)으로 구성된다. 컬렉션팀은 도서, 영화, 음악 등 트윈세대의 관심 분야 주제를

2) 전주시 트윈세대들이 워크숍을 통해 직접 지은 이름으로, '우주로'는 '우리가 주인이 되는 공간', '우리만의 행성', '우리만의 세주소'와, '트윈탐험, -길, journey', '-로 나아간다'는 뜻이 합쳐진 단어이다. '1216'은 '공간을 이용하는 트윈세대 연령'인 '12세~16세'를 가리킨다.

3) <https://lib.jeonju.go.kr/>

정해 자료를 모아 전시하고 다른 트윈세대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며, 기획팀은 우주로1216에서 해보고 싶은 다양한 경험들을 제안하고 기획하는 일에 참여하고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해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진다. 홍보운영팀은 더 많은 트윈세대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공간 홍보 등 공간 내 규칙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논의해서 만들어가는 팀이다. 이처럼 청소년이 운영과 홍보에 참여하여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공간을 운영하고, 청소년의 취향을 반영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내가 만드는 WHO(관심분야, 만나고 싶은 사람을 직접 조사·초대하는 사람책), 우주로 보물찾기(공간에 관한 미션 쪽지를 가지고 흩어져있는 힌트를 찾아 미션 완수), 북 셀카 콘테스트(도서 중 얼굴, 신체, 사물실사가 있는 책을 찾아 인증 샷 찍기), 우주로1216 탈출게임 기획단(다른 우주인들을 위한 방탈출을 재미있게 기획), 나의 최애템 컬렉션(도서, 음악, 영화 등 취향이 반영된 컬렉션 만들기), 내가 만드는 명작(명작)(원작을 읽고 재해석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공유), 싱잉 라이브러리(악기를 연주하고 새로운 곡을 만들어 무대에서 작은 공연 개최), 3D펜으로 만드는 나만의 굿즈(3D펜을 이용하여 피규어나 열쇠고리 제작), D.I.M(Do It Myself) 뜨개질편(언제든지 하고 싶은 만큼 뜨개질하기), 내.책.소(내가 읽은 책을 소개합니다. 내가 읽은 책을 소개하는 영상 제작) 등이 있다.

‘우주로 1216’은 기존 도서관의 틀을 깬 새로운 공간으로, 한 개층 전체를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설계하였다. 지역의 청년 문화 활동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청소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음악·방송이 가능한 스튜디오도 마련되어 있다. 독서를 강요하지 않도록 벽면 일부에 청소년 관심 주제에 따라 분류하고 별칭한 서가를 자연스럽게 배치하였고, 청소년을 위한 북 큐레이션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놀이와 휴식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보드게임이 구비되어 있으며, 비밀의 방이 조성되어 있어 또래와 비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그물이 설치되어 눕거나 놀 수 있고, 정글짐처럼 매달릴 수도 있다. 전체가 개방된 공간이지만 유독 한 공간만은 문이 닫혀 있는데, 청소년들이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다. ‘우주로1216’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고, 그들이 선택하고 주도하며 활동을 하도록 장소와 내용을 그저 제공할 뿐이다. 자유를 주었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규율에 어긋나거나 함부로 이용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트윈세대의 운영단이 공간 내 규칙과 운영 내용을 함께 만들어 가므로 청소년들은 그들만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2.2.3 마포중앙도서관 ‘청소년교육센터’

서울 마포구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래에 대한 진정한 투자라는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배움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시대가 필요로 하는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을 오랜 기간 고심하였다. 고심의 결과물로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들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해주기 위한 일환으로 ‘청소년교육센터’를 포함한 마포중앙도서관을 건립하였다. 마포중앙도서관은 건물 내에 도서관(2~4층)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춘 청소년교육센터(5층)를 운영하고 있어 국내 최초로 '두 개의 심장을 가진 도서관'이라는 컨셉으로 건립되었다(마포중앙도서관, 2021).⁴⁾ 특히, 청소년교육센터는 도서관 하부 조직의 하나로 교육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청소년교육센터 팀에서 별도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특이점을 가지며, 건물 설계와 프로그램 설계 시 서비스 대상을 분명하게 설정하여 청소년들이 이 공간에서 성장하고 꿈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마포 청소년교육센터, 2021).⁵⁾

음악, 생활 체육, 공예·미술, 인문, 창의 사고력 융합형, 4차 산업 콘텐츠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된 '특기적성 프로그램'과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미래 핵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교연계 프로그램'(4C교육 프로그램: Communication(의사소통능력), Critical thinking(비판적 사고능력), Creativity(창의력), Collaboration(협업능력)) 등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음악(피아노, 보컬, 난타, 드럼, 국악, 사물, 바이올린, 첼로, 기타, 작곡 등), 공예·미술(서예, 데생, 수채화, 입시 및 내신대비, 종이접기 및 각종 공예 등), 무용·연기(현대무용, 발레, 리듬체조, 스트릿댄스, 뮤지컬, 연기, 연극, 스마트스피치, 구연동화, 무대분장 등), 만화·애니메이션(만화창작, 애니메이션 제작, 캐릭터 디자인, 일러스트 등), 문학창작(시나리오 극작, 수필, 논술, 토론, 입시와 학부모 특강 등), 소프트웨어(코딩, 로봇, C언어, 드론, 앱(App), 사진편집 및 동영상, 블로그, 3D프린팅 등) 등 6

개 영역 60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특히 소외 청소년의 문화예술 교육 여건 개선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한다. '학교연계 프로그램'은 중등은 자유학년제, 고등은 고교학점제 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거리를 학교별 맞춤형으로 기획하여 운영한다. 대학진공 및 진로·직업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문화적 소양을 개발하고 인성과 감성개발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소년교육센터'에는 창의융합 및 창작 활동 프로그램실이 피아노실, 개인악기연주실, 악기연주실, 연기연습실, 무용연습실, 창의융합실, 공예작업실, 소프트웨어실, 메이커스튜디오, 만화창작실, 문학창작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프로그램실 내부에는 목적에 따라, 악기와 도구, 조명, 거울 벽면, 3D 프린터, 전자칠판, 태블릿, PC 등과 음향 및 빔 프로젝트가 구비되어 있다.

'청소년교육센터'는 도서관과 청소년문화센터가 한 건물 내에 있어 독서지도는 도서관으로, 특기 적성 프로그램은 청소년문화센터로 분업화하였다. 청소년들이 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다양한 특기 적성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활동 및 진로 체험을 하고, 도서관에서는 책을 중심으로 한 독서활동을 할 수 있다. 이에 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도서관은 책만 있거나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닌 문화와 교육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4) <https://mplib.mapo.go.kr/mcl/index.do>

5) <https://mplib.mapo.go.kr/myedu/index.do>

2.2.4 은평구립구산동도서관마을 ‘청소년 자료실’

서울 은평구의 은평구립구산동도서관마을 3층에 ‘청소년 자료실’이 있으며, 21석의 좌석을 구비하고 있다(은평구립구산동도서관마을, 2021).⁶⁾ 청소년 도서를 구비하고 다양한 주제에 따라 ‘모아 읽는 책’을 전시하며, 문학작가, 진로도서, 주제별 도서, 신간도서 등 추천도서전시 서비스도 제공한다. 스터디, 조별과제, 회의 등 그룹활동이 가능한 커뮤니티 룸을 운영하며, 청소년 독서동아리 및 학교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과 진로특화 분야 자료는 ‘모이는 사랑방’, 자연과학과 기술과학 분야 자료는 ‘책 읽는 다락방’, 예술, 언어, 역사 분야 자료는 ‘책 읽는 건넌방’, 문학 분야 자료는 ‘책 읽는 문학방’으로 주제별로 이름을 정해서 운영 중이다. 또한 ‘또래방, 우리방, 끼리방, 책 읽는 큰방, 책 읽는 작은방’의 커뮤니티 룸을 운영한다. 2~4층의 각 자료실 내부에는 만화 자료실 ‘만화의 숲’이 운영 중이며, 세대와 기호를 고려하여 층별로 각기 다른 주제와 장르로 분류된 만화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독서 이외 다양한 주제의 청소년 동아리가 활동 중이며, 학생들의 활동은 도서관 이용자에게 서비스로 제공되거나 그 결과를 전시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청소년 동아리 ‘마침표’는 라디오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녹화와 편집·생중계 등의 모든 과정을 직접 해보는 미디어·방송 동아리이다(은평구립구산동도서관마을 블로그, 2021).⁷⁾ ‘차치동갑’은 만화자료실 ‘만화의 숲’에서 도서관 활동

과 독서 활동을 하는 만화동아리로 자신이 정한 요일에 봉사를 자발적으로 수행하여 자원봉사시간 등록이 가능하며 만화를 읽고 토론하며 도서관 축제 및 행사에도 참여한다. ‘심봉사’는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의 과학동아리 겸 교육봉사동아리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과학실험이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과학 원리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청화’는 도서관 청소년 운영위원회로, 도서관 이용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어떻게 도입할지 토의하고 방법을 찾아내는 동아리이다. 2020년에는 ‘청소년, 일상이 시가되다!’, 청소년 아지트 기획, 온라인 및 오프라인 회의, 청소년 신간도서 소개, 작가와의 만남(3회), 청소년 책의 해 활동, 코로나 프로젝트(최근에 읽은 책 나눔, 인생명화 공유, 생생 인터뷰 은평의 역사), 온·오프라인 사진전 등의 활동을 하였다. ‘치즈스틱’은 청소년 독서토론 모임으로 독서, 영화, 기사 등을 소재로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청소년 동아리들은 회원 모집 기간에 지원자의 신청을 받아, 동아리의 기존 회원들이 직접 심사하여 새 회원을 선발한다. 이외에도 오픈채팅방을 활용하여 청소년 독서모임을 진행하여, 도서관에서 고른 책과 영상 등을 보고 공개된 링크를 통해 누구나 채팅이 가능하다.

북 큐레이션 서비스의 일환으로 여러 주제의 컬렉션을 소개·전시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직업마상’은 ‘직접 읽고 마음대로 주는 상’의 줄임말로, 도서관 직원, 청소년, 도서관 이용자가 함께 참여하여 선정하는 청소년 도서 우수상이다. 청소년 문학(한국·외국), 교양도서

6) <https://www.gsvlib.or.kr/>

7) <https://blog.naver.com/gsvlibor>

중에서 선정하여 소개한다. 직위마상에 선정된 책 중 이용자 투표를 통해 '올해의 청소년 책 어워즈'에 책을 선정하며, 투표 참여자 중 몇 명을 선정하여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학교 연계 책 추천'에서는 관내 학교도서관 청소년들이 친구에게 권하는 책을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청소년 진로도서'에서는 스포츠 마케팅, 사회 복지, 패션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진로 도서를 큐레이션하고, '만화의 숲'에서는 다양한 만화 컬렉션과 작가를 소개한다. 이 밖에도 새학기를 앞둔 청소년을 위한 컬렉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화'가 권하는 시, 청소년 독서모임 흥행작 등 다양한 컬렉션을 전시, 제공하고 있다

3. 연구설계

3.1 연구절차와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공공도서관 청소년 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여 공공도서관 청소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국내 공공도서관 청소년 서비스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우수사례 선정기준은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기존 서비스의 내용이나 방법에서 탈피하여 새

로운 시도를 하는 경우와 청소년 전용 공간이 있는 경우로 설정하였다.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기준에 적합한 도서관 14개관⁸⁾을 선정한 다음 청소년 전용 공간과 서비스 프로그램의 중심으로 내용을 구분하였다. 홈페이지 조사 이후 방문을 허용한 도서관(서초구립양재도서관, 진주시립도서관 꽃심, 마포중앙도서관, 은평구립구산동도서관마을)은 현장방문을 통해 청소년 서비스 담당 사서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문서자료를 요청한 다음 서비스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사례로 제시하였다.

둘째, 부산·울산·경남 지역 공공도서관 청소년 서비스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전 공공도서관 청소년 서비스 담당 사서, 도서관장 그리고 문헌정보학과 교수 등을 대상으로 내용검증을 위한 프리테스트를 실시하였다. 프리테스트 대상은 서울 지역 공공도서관 중 청소년 서비스가 활발한 도서관의 청소년 서비스 담당 사서, 청소년 서비스 경력이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사서, 도서관 업무 경력이 많은 도서관장, 아동·청소년 독서지도를 강의하는 문헌정보학과 교수로 설정하였으며, 검증과 자문을 받은 후 설문지 내용을 확정하였다. 설문조사대상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⁹⁾에 등록된 부산지역 45개관,¹⁰⁾ 울산지역 19개관, 경남지역 71개

8) 서초구립양재도서관 '틴즈 플레이스', 진주시립도서관 꽃심 '우주로1216', 월곡꿈그림도서관 '1318서가·1318톡(Talk)탁', 마포중앙도서관 '청소년교육센터', 정독도서관 '청소년관', 은평구립구산동도서관마을 '청소년자료실',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청소년열람실 언덕', 대화도서관 '청소년자료실', 산본도서관,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 불암도서관 '청소년자료실', 푸른들청소년도서관 '청소년자료실', 남구청소년도서관 '청소년자료실', 경남대표도서관 '청소년관' 등 총 14개관이다.

9) <https://www.libsta.go.kr/>

10)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검색된 42개관에 더해 부산광역시 도서관포털(<https://library.busan.go.kr/portal/>)에 게시된 신설도서관 3개관을 추가하였다(2021. 3. 기준).

관으로 총 135개 공공도서관으로 하였다(2021. 3. 기준). 이 중 어린이전문도서관, 영어도서관 그리고 청소년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설문조사를 거절한 도서관을 제외한 101개관의 공공도서관 청소년 서비스 담당 사서를 대상으로 온라인 및 서면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결과 총 93개관이 응답하여 회수율은 설문조사에 동의한 도서관의 92.1%이다. 청소년 서비스 담당 사서가 없는 경우, 서비스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어린이 서비스 담당 사서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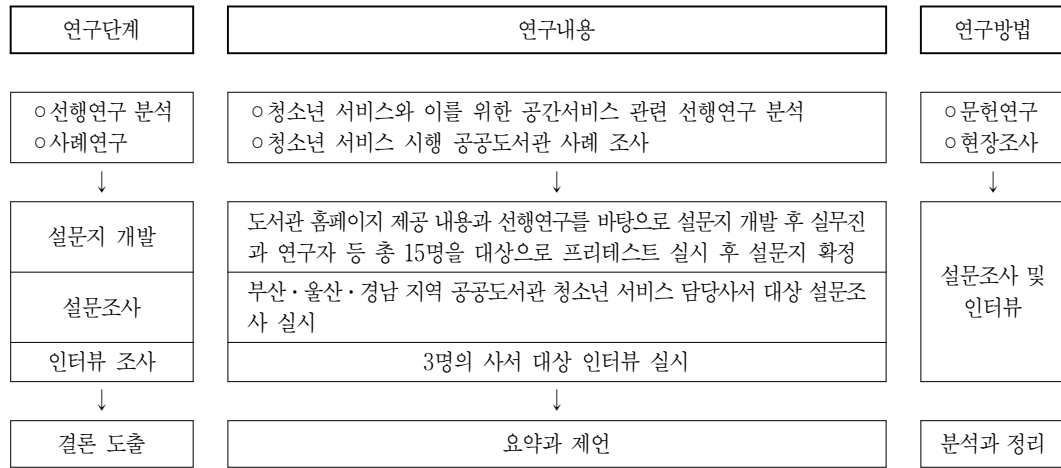
설문지의 내용은 <표 1>과 같이 크게 청소년

서비스 현황, 청소년 서비스에 대한 사서의 인식 그리고 일반사항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는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청소년 서비스 현황에 대한 내용은 공공도서관 청소년 서비스 우수 사례 도서관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이어 설문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청소년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사서 3명을 대상으로 응답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청소년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데 참고하였다.

이상 연구내용과 방법은 <그림 1>과 같다.

<표 1> 설문지의 내용

구분	설문지의 내용		문항수
청소년 서비스 현황	청소년 전용 공간	청소년 전용 공간의 유무	6
		청소년 공간 내 시설의 종류	
		공간 기획 단계에서의 청소년 참여 여부	
		공간 운영 과정의 청소년 참여 여부	
		공간 운영상 애로 사항	
		청소년 공간의 향후 계획	
	청소년 서비스	청소년 서비스 제공 여부	8
		청소년 서비스 대상의 연령대	
		제공 중인 청소년 서비스 유형	
		청소년 서비스 시행 계기	
		서비스 기획 과정에서의 청소년 참여 여부	
		서비스 제공에서의 청소년 참여 여부	
		청소년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애로 사항	
		청소년 서비스의 향후 계획	
청소년 서비스에 대한 사서의 인식	청소년 전용 공간	청소년 공간의 필요성	2
		공간 내 필요한 시설의 종류	
	청소년 서비스	청소년 서비스의 필요성	3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	
일반사항	담당 사서의 인적 사항	사서의 성별	3
		사서의 연령	
		사서의 도서관 근무 경력	



〈그림 1〉 연구절차와 내용

3.2 연구의 신뢰도

연구결과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 서비스의 현황과 청소년 서비스에 대한 사서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항목 중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한 총 5개 항목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 결과, 〈표 2〉와 같이 신뢰도 계수가 0.6보다 높게 나타나 설문지 내용은 내적 일치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연구의 분석을 위한 통계 처리는 SPSS Statistics23을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일반사항

설문조사에 응답한 청소년 서비스 담당 사서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 본 결과, 성별로는 '여성'이 76명(81.7%), 연령대로는 '30대'가 50명(53.8%)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서관 근무 경력은 '5년 미만'이 41명(44.1%)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 연령별, 근무 경력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응답내용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별도로 기술하지 않았다(〈표 3〉 참조).

〈표 2〉 문항의 신뢰도

구 분	Cronbach's α
청소년 공간의 필요성	.722
청소년 공간의 필요 시설	.761(평균값)
청소년 서비스의 필요성	.722
공공도서관에 필요한 청소년 서비스	.740(평균값)
청소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필요 요소	.749(평균값)

〈표 3〉 청소년 서비스 담당 사서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문항	구분	빈도(%)	합계(%)
성별	남	17(18.3)	93(100.0)
	여	76(81.7)	
연령	20대	17(18.3)	93(100.0)
	30대	50(53.8)	
	40대	21(22.6)	
	50대 이상	5(5.4)	
도서관 근무 경력	5년 미만	41(44.1)	93(100.0)
	5년 이상~10년 미만	25(26.9)	
	10년 이상~15년 미만	14(15.1)	
	15년 이상~20년 미만	9(9.7)	
	20년 이상	3(3.2)	
지역	부산	33(36.0)	93(100.0)
	울산	13(12.8)	
	경남	47(51.2)	

연구대상 도서관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 본 결과, 경남지역이 47개관(51.2%)로 가장 많았다. 경남 지역의 공공도서관은 총 71개관이며 응답을 수락한 도서관 52개관 중 47개관이 응답하였다. 부산 지역의 공공도서관은 총 45개관이며 응답을 수락한 도서관 34개관 중 33개관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고, 울산 지역의 공공도서관은 총 19개관이며 응답을 수락한 도서관 15개관 중 13개관이 응답하였다. 지역에 따른 응답내용의 차이 역시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별도로 기술하지 않았다.

용 공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해당 공간을 설치하는 도서관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신설 도서관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청소년 전용 공간을 마련한 도서관은 대략 20%를 상회하고 있어, 공간 서비스의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신설 도서관을 제외하고 이미 건립된 도서관의 경우 한정된 도서관 공간 내에서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이다(〈표 4〉 참조).

4.2 청소년 전용 공간 현황

4.2.1 청소년 전용 공간 설치 현황

설문조사에 응답한 도서관 중 '청소년 전용 공간이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은 22개관(23.7%)이며 '청소년 전용 공간 없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71개관(76.3%)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소년 전

4.2.2 청소년 전용 공간 내부 시설 현황

도서관 내 청소년 전용 공간이 있는 도서관 23개관을 대상으로 구비 시설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청소년 서가'를 구비한 도서관이 17개관(73.9%)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 열람 공간'은 4개관(17.4%), '청소년 휴식 공간'과 '청소년 동아리(모임) 공간'은 각 1개관(4.4%)이

〈표 4〉 청소년 전용 공간 여부

구분	빈도(%)
청소년 전용 공간이 있다	22(23.7)
청소년 전용 공간이 없다	71(76.3)
합계	93(100.0)

〈표 5〉 청소년 공간 내 시설 유형

구분	빈도(%)
청소년 서가	17(73.9)
청소년 열람 공간	4(17.4)
청소년 휴식 공간	1(4.4)
청소년 놀이 공간	0(0.0)
청소년 동아리(모임) 공간	1(4.4)
합계	23(100.0)

구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대부분의 도서관이 서가나 열람 공간만 갖추고 운영하고 있었으며, 청소년 휴식 공간과 동아리(모임) 공간 등을 구비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4.3 청소년 서비스 현황

설문조사에 응답한 도서관 중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은 71개관(76.3%)이며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도서관은 22개관(23.7%)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전용 공간을 갖춘 도서관이 많지 않은 것에 비해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

는 도서관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특정 대상으로 한 전용 공간이 없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최근 일부 공공도서관에서 청소년 서비스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그 원인으로 작용함을 추측할 수 있다(〈표 6〉 참조).

공공도서관에서 청소년 서비스의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 서비스 대상 연령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만 13~15세(중학생)’를 서비스 대상으로 설정한 도서관이 66개관(44.6%), ‘만 16~18세(고등학생)’를 서비스 대상으로 설정한 도서관이 58개관(39.2%)으로 나타났으며, ‘만 13~15

〈표 6〉 청소년 서비스 제공 현황

구분	빈도(%)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71(76.3)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2(23.7)
합계	93(100.0)

세(중학생)'와 '만 16~18세(고등학생)'를 모두 서비스 대상으로 한 도서관도 있었다. 조사대상 공공도서관에서는 청소년 서비스 대상을 대체로 '만 13~18세(중·고등학생 연령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만 9~12세(초등학생 고학년)'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이 16개관(10.8%), '만 19~24세(대학생 연령대)'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이 2개관(1.4%)인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연령대에 대해서는 도서관마다 다르게 인지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표 7〉 참조).

도서관이 제공하는 청소년 서비스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 대상 독서교육 프로그램' 41개관(18.7%), '청소년 독서 동아리' 40개관(18.3%), '청소년을 위한 북큐레이션' 37개관(1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청

소년 진로 지도'를 운영하는 도서관이 33개관(15.1%), '청소년 대상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서관이 30개관(13.7%), '청소년 도서관 봉사 동아리'를 운영하는 도서관이 29개관(13.2%) 등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지에 제시된 항목 이외 멘토링(영어책 읽어주기) 봉사활동이나 수험생 대출가능권수 확대 등의 내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도 있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공공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주로 독서나 책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이 조금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도서관에서 청소년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사서·도서관 내에서 필요성 제기'가 계기로 작용했

〈표 7〉 청소년 서비스 대상 연령대(복수응답)

구분	빈도(%)
만 9~12세(초등 고학년 연령대)	16(10.8)
만 13~15세(중학생 연령대)	66(44.6)
만 16~18세(고등학생 연령대)	58(39.2)
만 19~24세(대학생 연령대)	2(1.4)
기타	6(4.1)
합계	148(100.0)

〈표 8〉 청소년 서비스 유형(복수응답)

구분	빈도(%)
청소년 대상 독서교육 프로그램(독서 관련 강좌, 작가와의 만남 등)	41(18.7)
청소년 독서 동아리(독서 토론 등)	40(18.3)
청소년을 위한 북 큐레이션(권장 도서 선정 및 전시)	37(16.9)
청소년 진로 지도(진로 체험, 취업 및 대입 정보 지원)	33(15.1)
청소년 대상 문화 프로그램(취미 강좌, 특정 분야 강의 및 체험 등)	30(13.7)
청소년 도서관 봉사 동아리(청소년 사서, 청소년 진행도우미 등)	29(13.2)
기타	9(4.1)
합계	219(100.0)

다는 도서관이 48개관(31.6%)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영 주체(지자체 및 교육청)의 요청'에 30개관(19.7%), '도서관 인근 환경(도서관 인근에 학교 밀집 등)'에 29개관(19.1%), '청소년 서비스를 시행 중인 다른 도서관의 영향'에 20개관(13.2%), '지역 주민(학부모)의 요구'와 '청소년 이용자의 요구'에 각각 11개관(7.2%)이 응답하였다. 이외 청소년 서비스 지원 공모 사업 신청 결과 서비스를 시작했거나, 청소년 서비스가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그에 따른 서비스 제공은 당연하기에 시작했다는 응답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에서 최근 공공도서관계에서는 청소년을 독립된 하나의 이용자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청소년 서비스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가늠할 수 있었다(〈표 9〉 참조).

청소년 공간과 청소년 서비스는 청소년의 요구와 수요가 반영되어 기획되는 것이 그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이끌어 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공간과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할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간과 서비스를 설계한다면, 관심도와 참여도에 더해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에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공간 구성 및 서비스 기획 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하였는지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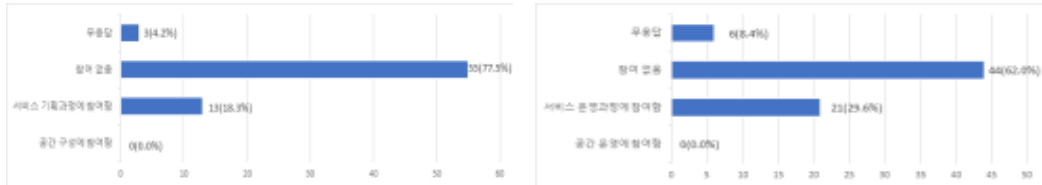
하였다. 조사 결과, '참여 없음'으로 응답한 도서관이 55개관(77.5%)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 기획에 참여함'으로 응답한 도서관이 13개관(19.1%), '공간 구성에 참여함'으로 응답한 도서관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 공간 기획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점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공간 기획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하는 경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공간 구성과 서비스 기획과정에 이어 운영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하는지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참여 없음'으로 응답한 도서관이 44개관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 운영에 참여함'에 21개관(32.3%)이 응답하였다. '공간 운영에 참여함'에 응답한 도서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공간과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자유응답형으로 설문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청소년의 경우 학업 이외 관심사가 부족하고 그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율이 저조함과 동시에 도서관을 시험공부를 위한 단순한 열람실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운영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그 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의

〈표 9〉 청소년서비스 시행 계기(복수응답)

구분	빈도(%)
사서·도서관 내에서 필요성 제기	48(31.6)
운영 주체(지자체 및 교육청)의 요청	30(19.7)
도서관 인근 환경(도서관 인근에 학교 밀집 등)	29(19.1)
청소년 서비스를 시행 중인 다른 도서관의 영향	20(13.2)
청소년 이용자의 요구	11(7.2)
지역 주민(학부모)의 요구	11(7.2)
기타	3(2.0)
합계	152(100.0)



〈그림 2〉 청소년 공간 구성과 서비스 기획과정/공간 및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청소년 참여 현황(복수응답)

〈표 10〉 청소년 공간과 서비스 운영과정에서의 어려움(자유응답형)

세부 내용	중복응답수
저조한 도서관 이용과 소극적 참여(청소년들의 시간 부족,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인식 부족)	30
공간 부족	9
청소년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자(전문가) 부족	4
예산 부족	1

부족 문제와 자유학년제, 직업 체험 교육, 토론 동아리 등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의 부족과 예산 부족 역시 문제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전용 공간을 도서관 설계 시점부터 반영하거나 리모델링으로 창출하지 않는 이상 조성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4 청소년 서비스에 대한 사서의 인식

4.4.1 청소년 전용 공간에 대한 사서의 인식

공공도서관 청소년 전용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사서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필요하다'에 응답한 도서관이 54개관(58.1%)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에 응답한 도서관이 26개관(28.0%), '매우 필요하다'에 응답한 도서관이 9개관(9.7%), '필요하지 않다'와 '전혀 필요하지 않다'에 응답한 도서관이 각각 2개관(2.2%) 순으로 나타났다. 문항의 평균값은 3.7098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청소년 공간의 필

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에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보편화된 것처럼, 청소년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많은 사서들이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11〉 참조).

“어린이 자료와 다르게 청소년 자료는 전용 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아, 종합자료실 또는 어린이자료실에 자료가 있습니다. 진로·학업, 인간관계에 한창 고민이 많은 나이인 청소년을 위해 전용 자료실이나 전용 서가를 마련하고 권장도서 북 큐레이션을 하면 청소년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독서 교육 및 진로정보 제공 등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지에서 발췌)

“청소년이 좀 더 건전한 놀이를 하거나 독서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휴식 공간의 필요성도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처럼 청소년들의 여가 시간 활용을 도서관에서 할 수

〈표 11〉 청소년 전용 공간의 필요성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매우 필요하다	9(9.7)	3.7098	0.76
필요하다	54(58.1)		
보통이다	26(28.0)		
필요하지 않다	2(2.2)		
전혀 필요하지 않다	2(2.2)		
합계	93(100.0)	-	-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생산성 있고 바람직한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으며, 꿈과 진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지에서 발췌)

청소년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전용 공간이 있는 도서관과 청소년 전용 공간이 없는 도서관으로 나누어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 전용 공간 유무와 상관없이 청소년 전용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용 공간이 있는 도서관에서 청소년 서비스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필요하지 않거나 매우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없었으나, 청소년 전용 공간이 없는 도서관에서는 ‘필요하지 않거나 매우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4.4%로 나타났다. 평균값 역시 청소년 전용 공간이 있는 경

우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전용 공간 서비스를 실시한 경험이 있을수록 공간 제공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지한다는 사실을 가늠할 수 있었다.

이어 청소년 공간 내에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가장 시급한 시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시설의 중요도에 대한 사서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우선순위에 따라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한 시설은 ‘청소년 서가로, 45개관(48.4%)이 1순위로 응답하였고 가중치 부여 합계에서도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다음으로 ‘청소년 동아리(모임) 공간’, ‘청소년 열람 공간’, ‘청소년 휴식 공간’, ‘청소년 놀이 공간’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4.4.2 청소년 서비스에 대한 사서의 인식
 청소년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사서의 인식

〈표 12〉 청소년 전용 공간 현황에 따른 청소년 공간 필요성에 대한 인식

구분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평균
청소년 전용 공간이 있다	5(22.7)	11(50.0)	6(27.3)	0(0.0)	0(0.0)	3.9545
청소년 전용 공간이 없다	4(5.6)	43(60.6)	20(28.2)	2(2.8)	2(2.8)	3.6338
합계	9(9.7)	54(58.1)	26(27.7)	2(2.2)	2(2.2)	3.7098

〈표 13〉 청소년 전용 공간의 필요시설(우선순위에 따라 응답)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가중치 부여 합계 ¹¹⁾
청소년 서가	45(48.4)	20(21.5)	7(7.5)	6(6.5)	5(5.4)	343(100.0)
청소년 동아리(모임) 공간	28(30.1)	27(29.0)	18(19.3)	5(5.4)	7(7.5)	319(100.0)
청소년 열람 공간	14(15.1)	23(24.7)	15(16.1)	6(6.5)	10(10.8)	229(100.0)
청소년 휴식 공간	3(3.2)	15(16.1)	14(15.1)	27(29.0)	7(7.5)	178(100.0)
청소년 놀이 공간	2(2.2)	2(2.2)	13(14.0)	15(16.1)	26(28.0)	113(100.0)
기타 공간	0(0.0)	1(1.1)	1(1.1)	0(0.0)	1(1.1)	8(100.0)

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청소년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도서관이 과반수 이상인 60개관(64.5%)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도서관 19개관(20.4%),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도서관 13개관(14.0%),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도서관 1개관(1.1%)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도서관의 84.9%에 해당하는 도서관이 청소년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항의 평균값 역시 4.043으로 높게 나타났다. 많은 사서들이 청소년 서비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시도와 노력을 해왔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표 14〉 참조).

청소년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청소년 서비스 제공 현황에 따라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표 15〉에 나타난 바와 같

〈표 14〉 청소년 서비스의 필요성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매우 필요하다	19(20.4)	4.043	0.624
필요하다	60(64.5)		
보통이다	13(14.0)		
필요하지 않다	1(1.1)		
전혀 필요하지 않다	0(0.0)		
합계	93(100.0)	-	-

〈표 15〉 청소년 서비스 제공 현황에 따른 청소년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인식

(빈도, %)

구분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평균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8(25.4)	44(62.0)	9(12.7)	0(0.0)	0(0.0)	4.1268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1(4.6)	16(72.7)	4(18.2)	1(4.6)	0(0.0)	3.7727
합계	19(20.4)	60(64.5)	13(14.0)	1(1.1)	0(0.0)	4.0430

11) 1순위 5점, 2순위 4점, 3순위 2점, 5순위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이 청소년 서비스 유무에 상관없이 청소년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도서관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에서 청소년 서비스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에서는 ‘필요하지 않거나 매우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없었으나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도서관에서는 4.6%의 응답률이 나왔다. 평균값 역시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소년 서비스를 실시한 경험이 있을수록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지한다는 사실을 가늠할 수 있었다.

공공도서관이 제공해야 하는 청소년 서비스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조사하였다.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서비스의 중요도에 대한 사서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우선순위에 따라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서비스는 ‘청소년 대상 독서교육 프로그램(독서 관련 강좌, 작가와의 만남 등)’이었으며, 다음으로 ‘청소년을 위한 북 큐레이션(권장도서 선정 및 전시)’, ‘청소년 대상 문화 프로그램(취미·특정 분야 강의 및 체험 등)’, ‘청소년 독서 동아리(독서 토론 등)’, ‘청소년 진로 지도(진로 체험, 취업·대입 정보 지원)’, ‘청소년 도서관 봉사 동아리(청소년 사서, 청소년 진행도우미)’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서비스의 현황과 비교해 보았을 때 ‘청소년을 위한 북 큐레이션(권장도서 선정 및 전시)’, ‘청소년 대상 문화 프로그램(취미·특정 분야 강의 및 체험 등)’, ‘청소년 독서 동아리(독서 토론 등)’, ‘청소년 진로 지도(진로 체험, 취업·대입 정보 지원)’ 등 3개 항목 간에는 순위차가 약간 있었으나, 청소년 대상 독서교육 프로그램(독서 관련 강좌, 작가와의 만남 등)’이 가장 우선 순위로 나타난 점과 ‘청소년 도서관 봉사 동아리(청소년 사서, 청소년 진행도우미)’가 가장 후순위로 나타난 점은 동일했다(〈표 16〉 참조).

마지막으로 공공도서관 청소년 서비스 활성화를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서의 인식을

〈표 16〉 공공도서관에 필요한 청소년 서비스(우선순위에 따라 응답)

구분	(빈도, %)					가중치 부여 합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청소년 대상 독서교육 프로그램(독서 관련 강좌, 작가와의 만남 등)	22(23.7)	23(24.7)	24(25.8)	3(3.2)	4(4.3)	284(100.0)
청소년을 위한 북 큐레이션(권장도서 선정 및 전시)	24(25.8)	14(15.1)	11(11.8)	13(14.0)	9(9.7)	244(100.0)
청소년 대상 문화 프로그램(취미·특정 분야 강의 및 체험 등)	15(16.1)	16(17.2)	14(15.1)	19(20.4)	11(11.8)	230(100.0)
청소년 독서 동아리(독서 토론 등)	17(18.3)	12(12.9)	13(14.0)	14(15.1)	9(9.7)	209(100.0)
청소년 진로 지도(진로 체험, 취업·대입 정보 지원)	10(10.8)	17(18.3)	13(14.0)	14(15.1)	12(12.9)	197(100.0)
청소년 도서관 봉사 동아리(청소년 사서, 청소년 진행도우미)	3(3.2)	7(7.5)	9(9.7)	8(8.6)	17(18.3)	103(100.0)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청소년 이용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담 인력(사서 및 사서보조 등) 지원', '지자체(교육청)의 예산 지원', '지역 주민(학부모)'의 관심, '외부 전문가 및 강사 지원', '청소년 전용 공간 확보 또는 확대'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들이 공공도서관을 학습을 위한 열람실이 아닌, 여가 활동과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고 진로를 고민하며 휴식도 취하는 문화공간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 입시환경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표 17〉 참조).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과 학교와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청소년들이 도서관을 단지 공부하는 공간이 아닌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문조사지에서 발췌)

“청소년 서비스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특화된 프로그램

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담 전문인력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공공도서관은 이용률이 높은 일반인이나 어린이들에게 치중된 서비스가 많으며... 질적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시행한다면, 청소년들의 발걸음을 도서관으로 향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도서관이 청소년들에게 놀이터가 되는 문화공간이면 좋겠습니다.” (설문조사지에서 발췌)

“학교와의 연계(교과 연계, 체험 연계)등을 통해 도서관에 대한 제한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학교 과제의 활용, 공공도서관 이용의 필요성 교육을 통한 청소년들의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설문조사지에서 발췌)

“공공도서관은 청소년서비스를 위해 예전부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입시준비 또는 학사일정, 학생들의 여러 관심사로 인해 학생들이 도서관이란 곳을 잘 찾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이 같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공공도서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설문조사지에서 발췌)

〈표 17〉 청소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필요 요소(우선순위에 따라 응답)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가중치
						부여 합계 ¹²⁾
청소년 이용자의 관심	64(68.8)	9(9.7)	6(6.5)	8(8.6)	2(2.2)	392(100.0)
전담 인력(사서 및 사서보조 등) 지원	8(8.6)	23(24.7)	12(12.9)	15(16.1)	5(5.4)	203(100.0)
지자체(교육청)의 예산 지원	11(11.8)	9(9.7)	27(29.0)	9(9.7)	9(9.7)	199(100.0)
지역 주민(학부모)의 관심	0(0.0)	24(25.8)	14(15.1)	12(12.9)	10(10.8)	172(100.0)
외부 전문가 및 강사 지원	5(5.4)	10(10.8)	12(12.9)	16(17.2)	13(14.0)	136(100.0)
청소년 전용 공간 확보 또는 확대	3(3.2)	12(12.9)	8(8.6)	7(7.5)	21(22.6)	122(100.0)

12) 1순위 5점, 2순위 4점, 3순위 2점, 5순위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5. 공공도서관 청소년 서비스의 과제

설문조사 분석 결과, 청소년들의 저조한 이용과 소극적인 참여, 전용 공간의 부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력 부족, 예산 부족 등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서비스 제공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사서들이 청소년 전용 공간과 청소년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도서관 청소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공간조성 과정과 서비스 기획단계에서 청소년의 관심사와 요구를 반영하고 운영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설문 조사 결과, 사서들은 청소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용자인 청소년의 관심이라고 하였다. 청소년들의 관심이 적어 참여도가 저조하고, 참여하더라도 부모의 권유나 봉사활동시간을 채우기 위해 신청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기획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하지 않는 것은 운영 상 용이함은 보장되나, 실제 이용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청소년의 호응을 얻기 힘들다. 그러므로 절차가 다소 복잡하더라도 이용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청취하는 창구를 개설하여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관심사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

더불어 공간조성과정에서도 서비스 대상자인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공간과 시설이 무엇인지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아이

디어가 반영된 공간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할 것이며, 또래 문화가 다른 세대보다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만큼 주위에 홍보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도서관의 대부분은 건립 초기 단계에서 이용자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특정 세대나 계층에 초점을 맞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이처럼 청소년 전용 공간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사나 흥미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몇몇 도서관에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그들의 의견을 수용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청소년의 취향을 반영한 공간조성과 시설 구비로 그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공간을 조성한다면, 청소년들은 도서관을 조용히 공부만 해야 하는 지루한 곳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활기찬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대부분의 사서들은 공공도서관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변화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청소년들은 도서관을 시험공부를 위한 곳이나 봉사 활동 시간을 채우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미있는 곳이나 가고 싶은 곳이 아닌 따분한 곳으로 인식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인식의 변화를 위한 첫걸음은 청소년의 관심사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에 있다. 청소년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기획할 때 청소년들의 참여도와 만족도는 상승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 전용 공간에서 다양한 문

화 활동을 즐기고, 휴식을 취하며, 또래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즐거운 시간을 공유할 수 있다면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기꺼이 도서관으로 갈 수 있다.

신설도서관이나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도서관은 공간계획 단계에서 청소년 전용 공간을 조성할 수 있으나, 이미 건립된 도서관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전용 공간을 조성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이 겪고 있는 공간부족의 문제 때문이다. 이에 가능하다면 이용정도가 미미한 공간의 용도를 전환하거나, 기존 공간 내 구획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 전용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가령, 소모임공간이 여러 군데이고 이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일부 공간을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용도 변경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더불어 공공도서관은 자유열람실 없이 개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존 도서관에 자유열람실이 있을 경우, 용도 변경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자유열람실에 대한 요구가 다소 존재하지만 최근 공공도서관 이용패턴이 개방된 공간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많은 도서관이 활용 중인 방법으로 도서관 내 일부 공간의 벽면을 이용하여 청소년을 위한 북 큐레이션과 전시서비스를 실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아가 서가 중 일부를 활용하여 청소년 전용 서가를 마련한 다음 청소년 관심 분야의 도서만 비치하는 방법도 있다. 로비를 활용하여 청소년을 위한 휴식과 놀이 공간을 마련하거나 코너 공간을 셀프 사진 촬영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으며, 도서관 외부 정원이나 주차장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 공연이나 플리마켓을 진행할

수도 있다.

공간환경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으로 인간의 인성과 태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청소년 시절에는 누구나 자신만의 공간을 꿈꾸며 특정 공간이나 장소에 대한 애착을 형성한다는 점과 주어진 환경의 영향에 따라 신체적 조건, 능력, 인성, 태도와 가치관 등이 형성되는 점을 감안 할 때, 공간의 영향력은 매우 중요하다(황연숙, 정현원, 손여림, 2013). 이처럼 공간과 같은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청소년들에게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준다면, 공공도서관은 청소년의 방과 후 바람직한 여가활동을 통한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간의 물리적인 변화는 공공도서관을 단순 열람실이 아닌 다양한 문화활동이 가능한 공간이라는 인식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을 위한 전용 공간이 공공도서관 안에 마련된다면, 청소년들은 그들만의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어 공공도서관을 자주 찾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이용자로서 존중받고 환영받는 존재임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셋째, 청소년 봉사활동 지원 시, 진로 희망이나 재능을 고려하여 봉사 활동을 다채롭게 구성해야 한다.

많은 공공도서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이를 활용하여 청소년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다른 세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즉, 재능기부 형식의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 가령 음악을 전공하거나 래퍼가 장래희망인 청소년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

여 공연을 봉사 활동으로 인정해주거나, 그림이나 웹툰 그리기를 좋아하는 학생이 이용자 캐릭터 커처나 만화 캐릭터를 그려서 제공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더불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과학 실험을 통해 과학원리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스마트 폰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노령층을 대상으로 스마트 폰 사용법을 알려주는 교육봉사를 실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도서관 서비스에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할 뿐 아니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세대 간 갈등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은 진로 체험을 하며, 재능 기부로 봉사의 기쁨도 느끼고, 봉사 활동 시간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동시에 다른 세대의 이용자들은 청소년들의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존재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문화 체험을 향유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넷째, 청소년들이 도서관 서비스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청소년의 기호와 동선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눈길을 끄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청소년 이용자가 오지 않는다면 학교로 찾아가서 독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의 청소년 교육 기관이나 상담센터 등과 연계하여 도서관이 아닌 유관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찾아가는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

도서관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청소년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참여도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 현대 사회에서는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홍보 효과가 막강하고, SNS를 통한 홍보와 바이럴마케팅(viral marketing)이 주요 마케팅

수단이 된다. 이에 도서관도 홈페이지 이외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서비스 홍보와 이벤트 개최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이러한 홍보 수단의 다양화뿐 아니라 홍보 방식에서 청소년들의 눈길을 끌 수 있도록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밈(모방을 통해 습득하는 문화요소)’이나 ‘짤(인터넷상의 사진이나 그림)’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세대가 다른 사서가 청소년의 문화를 온전히 이해하거나 파악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홍보도우미나 홍보동아리를 결성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청소년들끼리 통하는 표현과 방식으로 홍보한다면 청소년들은 호기심을 갖고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청소년 서비스 담당 사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정보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청소년 서비스 담당 사서들의 대부분은 청소년 서비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청소년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는 의지와 열정은 가득하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흥미와 요구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이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 프로그램 안에 포함하여 필요로 하는 사서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말 걸기부터 그들과 친해지는 방법 등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구체적이고 실제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사례와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과 역량을 지닌 우수한 사서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공유할 수도 있다. 일례로 전국학교도서관담당 교사 모임과 같이, 공공도서관 청소년 서비스 담당 사서들의 모임을 만들어 아이디어를 모으고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의 경험도 공유하는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그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학교도서관과 달리 공공도서관은 로테이션으로 인한 업무 이동이 잦지만 이러한 모임의 결과가 누적된다면 서비스 제공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청소년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가장 좋은 피드백은 청소년에게서 얻을 수 있으므로, 도서관에 자주 방문하는 청소년과 주변의 인맥을 활용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청소년 서비스 담당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사람책 서비스를 차용하여, 청소년들이 고민을 털어놓고 싶거나 특정 노하우를 알고 싶을 때 이용 가능하도록 인력을 섭외할 수 있다. 요리와 살림에 일가견이 있는 주부에게 간식 만들기를 배울 수 있고, 다양 경험을 통해 삶의 지혜를 터득한 어르신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도 있다. 학교폭력으로 괴로워하는 청소년들에게, 학창시절에 학교폭력을 경험했지만 이를 극복하고 성인이 된 청년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할 수 있다. 미용과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미용을 전공한 대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교원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청소년에게 학습 지도를 하거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퇴직한 어르신

들이 특정 직업에 종사한 경험을 살려 청소년들에게 기술을 전수할 수 있다. 아마추어 예술가를 섭외해서 청소년과 함께 예술 활동을 하도록 지원할 수도 있다. 봉사를 하고는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지역민들은 재능 기부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으며, 도서관은 지역 내에서 여러 계층을 청소년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성과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과 더불어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확보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청소년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며 이를 통해 이용자 만족도 제고라는 결과도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6. 결 론

공공도서관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또래와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창의적이고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통해 자기 계발과 전인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봉사활동 경험과 독서를 통해 사고력을 키우고, 다른 이용자 또는 사서와의 소통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도 있다. 공공도서관은 청소년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도서관 청소년 서비스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부산·울산·경남지역 공공

도서관의 청소년 서비스 현황을 조사한 다음 청소년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과제를 제안하였다.

국내 몇몇 도서관에서는 청소년 전용 공간을 마련하여 개방감 있는 열람실, 메이커스페이스, 스튜디오, 각종 연습실 등을 조성하여 특기적성 교육, 진로 탐색, 문화 체험, 놀이와 휴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공간조성을 위한 단계와 서비스 프로그램 기획/제공단계에서 청소년 이용자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참여를 유도하는 등 이용자를 운영의 핵심 대상으로 설정하여 그들의 요구와 흥미를 최대한 수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는 청소년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청소년 이

용자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호응도가 낮아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청소년을 공공도서관으로 끌어 모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의 아이디어와 흥미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모이고 활동할 장소를 제공하고, 아이디어를 응원하고 원하는 자료를 제공하여 스스로 모임을 갖고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연구를 기점으로 향후 공공도서관 청소년 공간과 청소년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보다 더 활발히 이루어져, 청소년 공간이 조성되고 서비스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과정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김경희 (2013).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방안: 경북 김천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전공.
- 김종성, 엄미진 (2010). 공공도서관 청소년 프로그램의 유형별 특성과 발전 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2), 39-56. <https://doi.org/10.14699/kbiblia.2010.21.2.039>
- 김지영, 이기리, 김연지, 박옥남 (2019). 공공도서관 청소년자료실의 공간 평가요소 분석 및 사례조사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3), 215-245. <http://dx.doi.org/10.4275/KSLIS.2019.53.3.215>
- 마포청소년교육센터 담당자 (2020. 5. 25.). 담당자와의 면담[인터뷰].
- 부산광역시 도서관포털 (2021. 3. 1.). 도서관 현황. 출처: <https://library.busan.go.kr/portal/>
- 우주로1216 담당자 (2020. 8. 12.). 담당자와의 면담[인터뷰].
- 이경란 (2011). 공공도서관 청소년 프로그램 모형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4), 5-26. <https://doi.org/10.4275/KSLIS.2011.45.4.005>
- 이경란, 한복희 (2009). 공공도서관 청소년프로그램 분석과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4), 115-130.
- 이순영, 김혜인, 박신애 (2020). 책 읽는 청소년 독자 형성 및 실증 연구 및 사례 조사. 2020청소년책

의해 제6차 포럼 자료집.

- 이지연, 안준범, 오혜영, 서혜린 (2018). 공공도서관 어린이청소년서비스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5(3), 189-214. <https://doi.org/10.3743/KOSIM.2018.35.3.189>
- 장아리 (2018). 공공도서관 공간특성 및 청소년 이용태도 조사연구.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54, 153-164.
- 지선, 장윤금 (2017). 공공도서관 공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및 요구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4), 461-480. <https://doi.org/10.14699/kbiblia.2017.28.4.461>
- 최보영 (2013). 공공도서관 청소년 독서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틴즈 플레이스 담당자 (2020. 8. 11.). 담당자와의 면담[인터뷰].
- 황연숙, 정현원, 손여림 (2013).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 내 학습공간 디자인을 위한 청소년 감성평가.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2(4), 113-120.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usan Library Portal (2021, March 1). Library Status. Available: <https://library.busan.go.kr/portal/>
- Chang, A. R. (2018). A study on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public libraries for adolescents and user's attitudes. Journal of Cultural Product & Design, 54, 153-164.
- Chi, S. & Chang, Y. K. (2017). A study on the young adult's perceptions and needs towards the public library spac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8(4), 461-480. <https://doi.org/10.14699/kbiblia.2017.28.4.461>
- Choi, B. Y. (2013). A study on promoting reading programs for young adults in public libraries in Korea.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Hwang, Y. S., Hyun, W. J., & Son, Y. R. (2013). Emotional evaluation of adolescents for learning spaces design in apartment complex community facilities.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Journal, 22(4), 113-120.
- Kim, G. Y., Lee, G. R., Kim, Y. J., & Park, O. N. (2019). A study on space evaluation factors and case analysis of teen space in public libraries in Korea.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3(3), 215-245. <https://doi.org/10.4275/KSLIS.2019.53.3.215>
- Kim, J. S. & Um, M. J. (2010). A Study On The Typological Characteristics Of Young Adults Programs In Public Libraries And Its Solutions For Development.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1(2), 39-56.

<https://doi.org/10.14699/kbiblia.2010.21.2.039>

- Kim, K. H. (2013). Suggestions to Utilise Public Library as Cultural Youth Space.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Lee, J. Y., Ahn, j. B., Oh, H. Y., & Seo, H. L. (2018). Study to identify the status and to develop plans for improving th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of public libraries.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5(3), 189-214.
<https://doi.org/10.3743/KOSIM.2018.35.3.189>
- Lee, K. R. & Hahn, B. H. (2009). A study on young adults' programs analysis & revitalization in public library.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4), 115-130.
- Lee, K. R. (2011). A study on developing a model for young adult programs in public libraries.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4), 5-26.
<https://doi.org/10.4275/KSLIS.2011.45.4.005>
- Lee, S. Y., Kim, H. I., & Park, S. A. (2020). Formation and Demonstration of Youth Reading Books, and Case Studies. 2020 Youth Book Year 6 Forum Data Book.
- Mapo Youth Education Center manager (2020, May 25). Interview with the Person in Charge (on-site visit).
- Oozoro 1216 manager (2020, August 12). Interview with the Person in Charge(on-site visit)
- Teens place manager (2020, August 11). Interview with the Person in Charge(on-site visit).